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볼턴 회고록, 문제 제기에 답하다

나은 것이며 북미 정상회담을 처음 제안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아니라 한국 측이라는 주장이다. 필자는 왜 이것이 정치적인 쟁점이 되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 북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북미 관계 개선의 큰 원칙에서 합의할 수 있었다. 전쟁 위험 등 강 대 강으로 치닫던 북미 관계가 우리 측의 중재 노력으로 싱가포르 합의를 이룬 것이다. 현재 비핵화 협상이 답보 국면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부터 북한에 비핵화 결단을 요구하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까지 연결시킨 것은 평가받아 마땅한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는 의혹은 사리에 맞지 않고 본다.

둘째, 6·30 남북미 정상 회동 시 미국과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배제시키고 '패싱'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내용의 진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성사된 만남이나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자 간 만남으로 제한하려는 북미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6·30 남북미 정상 회동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오히려 우리 대통령의 많은 역할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우리 측은 우리 영토에 온 타국 정상들을

배우고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였다. 외교 현장 즉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는 많은 중간 과정을 거친다. 어느 나라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르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협의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패싱이라고 하진 않는다.

셋째, 볼턴 회고록에서는 6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북한에 비핵화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년 내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었다. 볼턴 보좌관 자신만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했을 뿐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남북 간, 북미 간에 합의한 사항인 것이다. 오히려 회담의 핵방자는 볼턴 전 보좌관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볼턴은 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협상 결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옵션을 제안하였다고 자랑하듯 이야기한다.

한편 종전 선언에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인 것은 사실이다. 분단국인 우리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병행 추구하는 전략을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다. 한반도의 분단

이 정전 협정 체제가 때문이다. 정전 협정 체제를 평화 협정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종전 선언을 비핵화의 마중물로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비확산에만 관심이 있는 미국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실시는 북한의 비핵화 위협 감소에 따라 한미 간 협의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만약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해도 되겠다 하고 결정을 내렸어도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문제는 안보의 문제이지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볼턴 회고록은 사실 여부를 떠나 대체적으로 북미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창의적 전략이 담겨 있다. 정치적 계산에 매몰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에 대한 편견으로 사로잡힌 참모 볼턴의 제안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비핵화 협상이 전개되었다는 점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다.

우리로서는 올해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는 분위기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반기로 갈수록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외교 안보 진영의 개편을 계기로 우리의 중재 노력이 다시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종교칼럼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탄생 비화



김원명  
광주원음방송 교무

출판하겠다고 나서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미첼의 원고는 닳아져서 너털너털해졌다. 그날도 미첼은 원고 봉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밀린 출판사를 찾아갔을 때 편집장인 레이슨은 출장을 가기 위해 기차역으로 떠난 뒤였다. 미첼은 기차역으로 급히 갔다. 그녀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레이슨은 막 기차에 오르려 하고 있었다. 미첼은 큰 소리로 레이슨을 불렀다. 레이슨이 걸음을 멈추고 미첼을 쳐다보자 그녀는 그에게 다가와 원고 봉치를 안기면 말했다. "한번만 읽어 주세요" 레이슨은 마치 못해 원고를 들고 기차에 올라탔다. 달경 거리며 기차가 움직이자 미첼은 걸음으로 기차역을 빠져나가 우체국으로 향했다.

레이슨은 원고 봉치를 한쪽에 내려놓고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얼마 후, 기차 내 직원이 레이슨에게 전보 한 통을 내밀었다. 전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한번만 읽어 주세요. 미첼 울림" 전보를 훑어본 레이슨은 흥칫 미첼의 원고를 쳐다보고는 이내 하던 일을 계속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내용의 두 번째

전보가 배달되었다. 그때까지도 레이슨은 원고를 읽어 볼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또다시 세 번째 전보가 배달되었다. 그제서야 레이슨은 기차역에서 있던 미첼의 얼굴을 떠올리며 조금이라도 읽어 볼 생각으로 원고를 펼쳤다. 목격지에 기차가 멈추자 사람들이 하나둘 집을 챙겨 내렸지만 레이슨은 그것도 모른 채 미첼의 원고에 폭 빠져 있었다. 이렇게 해서 1936년 출판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하루에 1만 부씩, 3주 만에 17만 부, 4개월 만에 70만 부, 6개월 만에 100만 부가 넘게 팔리는 대성공을 거뒀다.

1937년 미국 도서판매협회상에 이어 풀리처상을 받았고, 그해에만 3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되었다. 이 인기에 힘입어 1939년에는 클라크 게이블과 비비언 리의 주연으로 영화화되어 아카데미상 10개 부문을 휩쓸었다.

미국 애틀랜타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무대가 되는 곳이다. 그곳이 무대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라도 이 소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세계적인 명작의 반열에 올라

있는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마가렛 미첼은 한편의 소설을 쓰기 위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다. 그리고 그 소설의 출판을 위해 3년 이상 출판사를 찾아다녔다. 무명작가로 출발한 마가렛 미첼에게 끊임 없이 도전하는 끈기가 없었다면 그녀의 작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그야말로 바람과 함께 사라져 흐르는 세월 속에 묻혀 버렸을지도 모른다.

작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여도 책으로 만들어져 만민에게 읽혀질 수 없다면 그 작품의 가치를 다 발휘 수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미첼의 끈기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우리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얼마나 끈기가 있는가, 매사를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가?' 이제 무더위와 폭염이 찾아오는 본격적인 여름이다. 그렇지만 무더위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소중한 하루하루 생활에 열중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를 곁에 오곡백과(五穀百果)가 대지를 채우는 시원한 가을이 다가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社說

부영주택 한전공대 부지 기증은 꿈수였나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안의 골프장을 한전공대 부지로 기증하기로 한 부영주택(주)이 '꿈수 기증' 논란에 휩싸였다. 골프장 부지 절반가량을 기증하는 대신 용도변경을 통해 나머지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부영은 최근 혁신도시 내 자사 골프장 부지 75만㎡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부지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증하겠다고 발표해 박수를 받은 바 있다. 감정가로만 806억 원에 달하는 땅을 조건 없이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자연녹지로 돼 있는 남은 골프장 부지를 주거 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나주시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도변경을 통해 남은 부지에 28층짜리 아파트 5328가구를 짓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제는 나주시의 태도다. 나주시는 부영이 한전공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만큼 아파트 세대 수 조절은 가능하겠지만 토지

용도변경 등 부영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부영은 2011년 450억 원에 골프장 부지(체육시설 용지)를 분양받았는데, 기부하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경우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부영의 골프장 부지 기증이 기부가 아닌 개발 이익을 노린 '거래'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부영은 게다가 아파트를 지으면 당연히 응해야 할 교육청의 학교 신설 요구도 모른 채하고 있다. 교육청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초·중·고교 신설을 요청하고 있지만 부영 측은 초등학교 외에는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지 기증을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 후 막대한 이익만 챙기고 학교 신설 등 공익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특히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주시는 특히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해묵은 과제 해결해야

지지부진한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개관 5년째 문화전당장 공석. 불안정한 문화전당 운영 체제. 지난 2006년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추진된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현주소다. 특별법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건립됐으나, 전당장은 무려 5년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전당을 축으로 광주 전역에 문화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5대 문화권 조성 사업도 제자리 걸음이다.

제8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조성위)의 활동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큰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위 사상 처음으로 광주 문화도시의 상징인 문화전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한 점도 신선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쟁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성위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

업의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는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 우선 5년째 공석 중인 문화전당장을 조속히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 컨트롤타워 없이 운영 정상화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비 50%에 대응해 같은 비율의 재원을 재정이 열악한 광주 시가 떠안아야 하는 독소 조항 탓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5대 문화권 사업의 재원 구조도 바꿔야 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문화전당의 운영을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법률안을 개정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문화전당의 운영을 준정부기관에 넘기면 예산 확보와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엔 출범한 조성위는 광주 문화수도 사업을 확대했던 박근희-이명박 정부 시절의 조성위와는 달라져야 한다. 조성위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상을 재정립하고 사업이 조속히 결실을 맺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때 피츠버그 파이리츠(pirates: 해적)의 경기를 즐겨 본 적이 있다. 광주 화정초-무등중-광주일고를 나온 강정호가 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해적 구단'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만큼 강팀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야수 출신으로는 최초로 한국 프로야구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강정호가 있었다.

유격수로 3루수 자리를 오가며 파이팅 넘치는 수비를 보인 그는 힘을 앞세운 공격력으로 홈구장 PNC 파크의 4번 타자를 맡았다. 2015년에 입

강정호의 추락

때 야구선수로서의 생활도 사실상 '삼진아웃'을 당한 것이다. 그동안 야구계에서는 불법을 저질러 거센 비난을 받고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그라운드로 돌아오는 선수들이 종종 있었다. 야구만 잘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결과 못지않게 과정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특권보다 공정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 강정호는 음주 운전 사고 이후 피츠버그에서 자리를 잡지 못했고, 국내 격력으로 홈구장 PNC 파크의 4번 타자를 맡았다. 2015년에 입

단해 세 시즌 동안 46개의 홈런을 기록했는데, 홈런보다 짜릿한 타격도 속되면서 각 구단들은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고, 선수들 또한 홈런을 치거나 끝내기 안타를 쳐도 팬들의 박수와 합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의 노력 끝에 관중 입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KBO 역시 팬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야구로 보답하겠다"는 강정호의 프로야구 복귀 꿈은 여론 악화로 일장춘몽이 되었다. 광주 출신 한 야구 천재의 몰락을 바라보는 팬들의 마음은 씁쓸하다. /유재관 편집1부장 jkyou@

기 고

전남관광재단 출범에 거는 기대



이광동  
전남도 관광과장

조직 등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자는 관광재단의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기도 하고, 출범식에 참석하는 도민들에게 그 의미를 알리기 위해 재단의 출범까지 발자취를 요약해 전시하기도 했다. 딱딱한 행사에 무언가 감성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관광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전남에 보석 같은 자원들이 산재해 있지만, 이 모든 자원에 다가 갈 수 없기에 어떤 자원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알려 외국인들이 찾도록 할 것인가는 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고민이기도 하다. 축제를 열거나 언론, SNS 등을 통해 장소에 대한 홍보 마케팅에 나서고, 자원을 가꾸고 다듬어 입소문을 나게 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전남도는 재단과 함께 관광지 예약제 도입과 언택트(비대면) 관광지 선정, 국내외

홍보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전남 관광을 준비하고 있다. 사실 재단을 설립하기까지 과정은 지난했다. 매미가 성체(成體)가 되기 위해 7년여 세월을 땅 밑 어둠 속에서 지낸다고 하는데, 재단 역시 3년여 시간이 지나 탄생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전남 관광에서 부족한 2%를 채워 더 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대응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선 7기 새천년 비전으로 선정한 블루 이코노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루 투어'일 것이다. 외지 방문객들이 와서 보고 소비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를 탄실하게 하기 위한 바탕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단의 출범은 이러한 블루 투어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시발점이 될 것이

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다. 전남의 관광 발전이라는 대의 앞에 겸손하며, 재단이 나이갈 목표와 꿈을 설계하고 가다듬었다. 관광의 통합적 추

진, 블루 투어의 실천적인 플랜 수립 및 구체화야말로 재단이 지향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한 단계 나아가면 전남의 숙원 사업인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살찌우고 여기에 체류형 관광의 디딤돌이 될 프로젝트를 그려 넣어 채색하게 되면 원대하면서도 섬세한 전남 관광 계획이 마련될 것이다.

전남 관광이 새로운 뎀박질을 시작했다. 관광객 6000만 명 달성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한걸음에 뛰어 넘는 데 이어 더 큰 목표인 관광객 7000만 명 유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과 내륙의 다채로운 관광 자원을 지닌 전남은 전국은 물론 세계 속의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 전남관광재단은 전남도와 협력을 토대로 블루 투어 완성의 대장정에 나서게 된다. 관광이 전남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자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경 치 부 220-0632 경 처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52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예 향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4 체 육 부 220-0621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